

#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행정 무능의 결과”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16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시의회가 익산시의 무능한 환경 행정을 질타하고 나섰다. 특히 익산시가 집단 암 발병 해결을 원하는 주민을 회유하고 압박하는 사

임형택 익산시의원, 5분 발언서 “비료공장 마당 불법매립 폐기물 성분조사 실시를”

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더해져 행정에 대한 불신을 좌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16일 제21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단 암발병 환자 장점마을 비료공장 마당에 불법매립이 확인된 폐기물에 대한 성분조사와 매립양에 대한 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 비료공장에서 근무한 직원에 따르면 200kg 박스 70개 분량의 연초박이 이틀에 한번 꼴로 실려 왔고 연초박 50%와 다른 재료 50% 정도를 섞어 유기질 비료를 생산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KT&G 광주공장, 신탄진공장 등에서 수천의 연초박을 금강농산에 공급한 사실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

다”면서 “현재도 전국 6개 비료공장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중요한 것은 금강농산이 연초박에 대해 익산시에 신고한 내용”이라며 “시가 제출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금강농산 생산비료 및 취급원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연초박으로 퇴비를 만들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이는 허위보고였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업체는 연초박으로 퇴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고온열을 가해 유기질비료를 만들었다”고 적시했다.

“최근 익산시가 금강농산 핵심기계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기계 떼어가는 것을 못하게 하면 업체가 40억원의 피해소송을 걸어와 공무원이 다친다.

임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지역전문가들이 이 업체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진행한 결과 발암물질인 파물질 14종과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됐고 원료인 피마자박 분해 결과 발암물질 3종과 독성물질 리신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초박에 열을 가해 분해한 결과 발암물질 2종이 확인됐고 공장과 마을에서 담배특이성을 가진 TSN도 발견됐다”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은 업체의 그릇된 욕망과 제도적 허점, 행정의 무능이 결합해 발생한 결과”라며 “시는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주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는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군산시, 수산물 유통 선진화 스마트 양식기반 구축

군산시는 16일 경기침체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돈 되는 수산업, 풍요로운 어촌’을 위한 제도 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동백대교 개통 및 근대역사문화지구와 연계해 수산물특화시장을 명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에 사업비 125억원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며 최근 수출품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른김 가공공장 설립 등 ‘수산식품가공사업’에 187억원의 예산을 투입, 수산물 식품산업 선진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고군산연결도로 개통과 함

께 어촌과 어항을 중심으로 어촌관광광역화를 통한 어촌 소득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명품 힐링섬 개발사업’에 325억원을 투입해 옥도면 말도, 명도, 방축도 3개 도서를 명품 트래킹 코스로 개발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에 공모해 무너2구, 말도항 등 2개소 사업’에 사업비 240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비하여 어촌관광시대를 열 계획이다.

안창호 경제항만국장은 “주민주도형 어촌관광과 혁신적인 수산업 사업 추진을 통해 어촌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조기정비로 영농환경 개선

익산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조기정비를 통해 농업인의 영농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합영읍 등 20개 면·동 일원의 농로확포장사업과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용·배수로정비사업을 전개한다.

이들 사업에는 총 148억원이 투입되며 정비가 완료되면 농촌의 민생안정과 영농환경이 개선된다.

시에서는 시민참여예산과 읍·면·동에 접수된 민원을 선정해 사업대상지에 대한 자체설계단을 구성한 후 조사·측량·설계·발주 등을 1월 중 진행해 농업생산기반 시설물을 영농기 이전에 최대한 정비할 예정이다.

또 불편사항 해소와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폭염과 수해 등의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의 8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시공으로 영농기 이전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지역경제회복에 행정력 집중 | 군산시, 5대 중점 방향 수립

상품권 3000억원 규모 확대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등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기해낸 변화와 혁신으로 다시 뛰는 군산경제를 위해 5대 중점 방향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으로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마저 폐쇄되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도형 경제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나타냈다.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을 3,00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소상공인 스마트 로지스틱센터 건립, 소상공인 특별보증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돈 버는 수산업과 미래성장형 어촌을 만들기 위해 수산물 유통가공 식품산업 선진화와 자립형 어가소득 향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군산시가 16일 5대 중점방향을 수립한 가운데, 군산사랑상품권을 3,00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임준 시장이 상품권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정부와 협의 중인 국가2산단 내 임해업무단지에 1,140억원이 투입되는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해 다양한 환적루트와 화물 인센티브 지원으로 글로벌 물류중심 군산항으로 나아갈 계획이고 2020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과 광역 해양관광레저 체험단지 조성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도시를 위

한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안창호 경제항만국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군산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유치 적극 추진

군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북도와 함께 2022년까지 군산항 인근 임해업무단지에 7만평 규모의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수출상사

와 관련된 기업체 200여개사를 유치하는 등 군산항의 활력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운영이 궤도에 올라서면 연간 600억원의 경제효과와 1,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자동차 수출 물동량이 7만대 이상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추진 · 대기오염측정소 추가 설치 등

군산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9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군산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2억원을 투입하며,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민간부문 110대, 공공부문 7대 등 총 117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경유차 DPF부착, PM 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DPF부착,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3개 대기오염측정소 이외에 4억7천만원을 투입해 2개소를 신규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신호등 4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에서 운영 중인 홍보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측정소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약 60억원

을 투입해 미동동, 군봉공원, 금강공원 등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전곡간 벚꽃길에 가로수를 식재할 예정이고 관내 4개 학교에 아외숲, 자연학습장, 미래숲 등을 조성하는 명상숲을 조성하고, 장미동과 군산산업단지 등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만들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방지시설에 대해 교체 및 설치로 1억원을 지원하며, 대기오염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자원을 실시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오는 2월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관공차량 2부제 시행, 대기오염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학교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 권고, 대형공사장 작업시간 조정, 노면청소차량 상시운행 등 시민 보호대책이 시행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평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